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데살로니가전서 5:16-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 설교

[16]항상 기뻐하라. [17]쉬지 말고 기도하라. [18]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추수감사주일의 뜻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좀 웃기는 날입니다. 한국교회에만 있는 명절입니다. 미국의 감사절에서 나온 건데 미국의 감사절은 사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은 아니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미국 교회에는 추수감사주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감사절이 우리한테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선교사가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하면서 추석 잔치를 했는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추석기념주일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 감사도 감사지만 오늘은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좋은 날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린이날, 이거 요즘은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천대했기 때문에 이런 날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존중하자고 계몽도 했지만 지금은 어딜 가나 아이가 주인 아닙니까? 어른의 날 같은 게 오히려 필요한 형편입니다. 감사의 날은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우리는 일 년 삼백육십오 일이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니 시다마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먹는 게 밥인데 '밥 먹는 날'을 따로 정해 지키는 것하고 비슷하지요.

그럼 감사의 날도 없애는 게 좋으냐? 그건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시작이 좀 애매하고 또 감사의 날이라 하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도 초막절이 있었으니까 뜻도 나름 찾을 수 있는 명절입니다. 게다가 이미 오랜 전통이 된 이걸 없애기보다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살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감사의 날은 그냥 평소 안 하던 감사를 몰아서 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참 감사를 드릴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그런 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요즘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고 있으니 감사에 대해서도 비유를 통해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비유가 꼭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유일한 비유지만 감사절에 이 말씀을 살핀 기억은 없지요? 목사가 개그맨이 아닌 다음에는 감사절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레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훌륭하지요? 난 이렇게 잘 하고 있소 하는 말이지요. 말인즉 감사라 했는데 내용을 보니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 해 주었을 때 내 마음에 생기는 어떤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한 걸 감사의 제목이라며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지요? 감사하고 정반대입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합니다. 말과 뜻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있지요?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만나 달라. 그런데 싫다는데도 들러붙습니다. 안 만나 주니 아예 협박을 합니다. 자살하겠다는 건 양반이지요. 안 만나주면 죽여 버리겠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사랑하니까 그렇답니다. 말은 분명 감사입니다. 그런데 뜻은 감사하고 정반대이니 위선이지요. 추악한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도 차라리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요. 그냥 내 잘난 것, 내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났겠지요. 하지만 그걸 감사라는 말로 포장해 버리니 교만의 죄가 더 커집니다. 주님께서 가장 크게 꾸중하신 외식죄, 위선의 죄가 됩니다.

하지 않은 감사

주님의 비유 가운데 감사라는 말이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악한 종의 비유겠지요? 언제 감사가 나왔어야 됩니까? 임금이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순간 나왔어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빚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한 번만 봐주시면 갚겠다고 빕니다. 보니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갚으라 해도 많이 봐주는 거겠지요? 그런데 아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당연히 나왔어야 될 반응을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그냥 나갔다 했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만 달란트, 내 평생 갚아도 안 되고 온 식구가 노예로 팔려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탕감 받고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저한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했지요. 한 번만 봐주면 갚겠다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감옥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을 꾸중하는데 그 종을 뭐라 부릅니까? "이 악한 종아!" 한자를 쓰면 뜻이 약해집니다. "이 못된 것!" 그런 말입니다. 왜 못된 종입니까? 임금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연기해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탕감해 주었는데 저는 별 것도 아닌 돈을 탕감은커녕 연기도 안 해주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종이 동료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디 못된 종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느낄 때 나도 흉내를 내고 싶어집니다.

주님이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종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래서 아무 반응도 안 보인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면 그 종은 사실 평생을 누르던 짐이 사라진 겁니다. 십 년 묵은 체증에 비길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도 한 마디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액수가 너무 엄청나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실 그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악한 종이 탕감 받은 일만 달란트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싶지요? 죄는 조금만 지어도 사형입니다. 그건 죄의 무게가 아니라 내 목숨의 무게입니다. 그걸 탕감 받았으니 죽었다 산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나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천 달러쯤 되는 빚을 탕감해 주시면 피부에 와 닿겠지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생길 건데 워낙 엄청난 걸 받아 느끼질 못 합니다.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를 모를 때

감사를 모를 때 참 포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모르면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 찬송 대신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어느 비유에 그런 게 나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지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해 밭에 보냈습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몇 시였는지 모르지만 조금 뒤 오전 아홉 시에 또 나가 일꾼을 구했다 하였으니 아침 여섯 시 아니면 일곱 시쯤 되었겠지요. 그런 다음 정오에도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포도원에 보내고 오후 세 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 다섯 시에 나가 보니 또 노는 사람이 있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후 여섯 시에 일당을 줍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그런데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걸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더 받겠구나 기대했습니다. 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적어도 두 세 데나리온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세 시에 온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도 오전 아홉 시, 심지어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결국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폭발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하고 한 시간밖에 안 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는 이게 잘하시는 일입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하루치를 주는 건 내 마음이다. 너하고는 애초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를 왜 악하게 보느냐 하는 물음 속에는 그렇게 따지는 네가 악하구나 하는 꾸지람이 담겼습니다. 왜 악합니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건 주인의 자비입니다. 그 사람도 도 먹여 살릴 식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니 악하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수고한 것만 알고 받은 은혜는 모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준 은혜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 기다립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일꾼으로 써줄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와 가서 일하라 합니다. 하루치 삯을 주겠다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오후 다섯 시에 부름 받은 일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물었지요. 왜 이 시각까지 이렇게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분이 없나이다." 이들이 한 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도 주인의 은혜를 잘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 전에 누가 나 좀 안 써주나 하고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주인을 만났을 때 이미 은혜

를 깨달았습니다. 불안했던 만큼 더 고마웠겠지요. 이들은 고마움을 느낄 조건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처음 일자리를 얻었을 때는 고마움이 없지 않았겠지만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었을 때 비교를 하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란트의 비극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 뚝 끊어집니까? 주님을 향하던 눈길을 거두어 사람을 바라볼 때 감사가 불평으로 변합니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감사하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많이 다릅니다. 간사하지요. 비교를 하면 언제가 감사하는 쪽으로 안 하고 꼭 불평하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못 먹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 생각하며 감사하는 대신 비싼 올개닉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실패한 사람이 있지요. 두 주 전에 살핀 달란트 비유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주인이 종을 셋 불러 달란트를 나누어줍니다. 첫째한테는 다섯 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입니다. 내가 셋째인데 하나밖에 안 줍니다.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안 나쁘면 사람이 아닙니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누구는 다섯, 누구는 둘인데 왜 나는 하납니까? 그래서 불만이 나오지요. 그래서 주인도 나쁘게 보았습니다. 지독한 노랭이라 생각하고 돈을 숨겨 두었습니다. 장사했다가 손해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주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개입됩니다. 그러니 은행에도 안 두고 땅에 묻었지요.

사람을 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니 주인이 안 보입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맡겨주신 분입니다. 둘보다는 적지요. 다섯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넌 안 된다 하시지 않고 하나를 맡겨 주셨습니다. 적어도 한 달란트는 관리할 수 있겠다 하고 나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맡은 만큼만 남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를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더라면 "이하동문"이 아니라 상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주시는 똑같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받은 은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는 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포도원 일자리를 주신 은혜는 모르고 적게 준다고 불평입니다. 약속대로 주셨는데도 투덜거리다 꾸중만 듣습니다. 맡겨주신 은혜는 모르고 하나밖에 안 준다고 기분이 나쁩니다. 감사할 줄 몰라 영원한 파멸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우리 시작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걸 한자로 배은망덕이라 하지요? 우리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가 바로 이 배은망덕의 죄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악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과일을 먹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배은망덕의 죄였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뱀이 말을 교묘하게 돌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과일도 먹어 버렸습니다. 시작이 그렇다 보니 똑같은 죄를 오늘도 거듭 짓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어떻다 했지요? 예, 간교하다 했습니다. 간사하고 교묘한 게 간교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데 안 좋은 방향으로 좋습니다. 그 간교함이 듬뿍 담긴 게 뱀이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압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과일은 무엇이든 마음껏 먹으라 하신 줄 압니다. 그렇게 먹으라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꼭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안 먹으면 그게 우리 인간의 자유를 드러내고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감사를 가로막음

그런데 뱀은 동산에 있는 열매 전체를 못 먹게 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 못 먹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과일 하나를 못 먹게 하신 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닌데 마치 아까워 못 먹게 하신 것처럼 느끼게 만든 거지요. 뱀의 이 질문을 듣고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답이 엉터리였지요. 뱀의 교묘한 질문 하나에 이미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손도 못 대게 하셨다고 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에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엉터리 대답을 하니까 뱀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정말로 아까워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못 먹게 하신 것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쩨쩨해졌지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시고 죽지도 않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겁까지 주시는 참 옹졸한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뱀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뭐겠습니까? 첫 질문을 통해 하와의 생각을 틀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생각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뭐겠습니까? 먹으라 하신 하나님,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신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대답했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와는 "모든"이라는 말을 빼먹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셨습니다. 원문은 더 분명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하와는 그냥 "동산의 나무 열매"라 합니다. 게다가 하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하셨다"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천지차이입니다. 심지어 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는데 여자의 대답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사람만 남았습니다. 주신 하나님은 없이 이제는 안 된다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하고 겨루시는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감사를 잊은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싶은 교만으로 자랐고 결국 열매를 따먹는 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감사라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감사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평소 드리는 감사, 우리 입에 붙어있는 감사라는 말의 뜻을 잘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일로 감사를 드립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우리는 압니다. 생일을 맞이해 드리는 감사, 집을 옮기고 드리는 감사라면 괜찮지요. 생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숙자가 아닌 이상 살 거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면했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권사님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만 다치고 몸은 조금 놀랐을 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이런 감사는 어떤 면에서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따라 하기 어려운 감사입니다.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요. 또 나야 감사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쉽지 않은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힘든 승진을 했다든지 사업상 경쟁에서 이겼다든지 하는 일을 두고 드리는 감사는 두 번 세 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범답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싶을 때 하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분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분 좋은 것하고 내가 잘난 것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깨달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불평이 나온다 했는데 반대로 감사가 나오는 경우도 사람을 보고 한 것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분명하다 싶어도 그걸 나눌 때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아무리 깊은 감사가 있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말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고서도 제 자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것이라면 내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것도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순수한데 이웃이 괜히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오해한 사람 잘못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바른 감사를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가장 소중한 감사

감사할 것 참 많습니다. 오늘 비유만 봐도 하루 종일 일한 다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거라면 오늘도 우리 온 식구가 먹고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옳겠지요. 동산 가득 맛 좋은 과일을 만드시고 마음껏 먹으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부모의 직분을 주시고 일터에서도 생업을 위한 일 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올해도 잘 하게 도우셨습니다. 감사를 드려야지요. 농사는 안 짓지만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이 시기에 하기 꼭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 감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달란트를 맡겨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은혜지요. 이게 뭘 가리키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은혜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게 뭐기에 달란트를 덜렁 맡겨 주셨을까요? 우리 같은 게 뭐기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하셨을까요? 신체검사도 안 하시고 이력서도 안 보시고 오직 한 가지 일자리를 찾아 인력시장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오직 하나 우리가 다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불쌍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은혜는 일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던 어마어마한 짐을 하나님이 은혜 하나로 덜어 주셨습니다.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하나면 됩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마음 깊이 고맙게 다가온다면 고맙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옛날 에덴동산에서 이 은혜를 상징하던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생명나무도 함께 두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산다 하신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이것저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서 연습할 것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만 깊이 깨달으면 나머지는 말 안 해도, 미처 생각 못 해도, 감사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느끼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그 은혜에 젖어 앞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그런 날로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